

SK(주)의 앰팩 인수 뒤엔 최태원 부녀의 큰 그림이...

# 아버지의 반도체 신화 이어... 딸은 '바이오'로 새 지평

(최태원)

(최윤정)



생산능력 연간 100만 l 로 확대돼  
'글로벌 1위 CDMO' 종합제약사로

투자전문 지주회사 SK(주)가 12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의 바이오·제약 위탁개발·생산업체(CDMO)인 앰팩 파인 케미컬즈를 인수하기로 했다.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인수 합병결정의 의미를 두고 SK(주)의 이후 경영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씨(작은 사진)가 SK(주)의 자회사인 SK바이오팜에 입사하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SK그룹에 따르면 최윤정씨는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며 시카고대학 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지난 6월 SK바이오팜 수시채용으로 입사해 경영전략실 산하 전략팀에서 선임매니저(대리급)로 근무



앰팩사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Petersburg) 생산시설 전경.

/뉴스시스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바이오·제약 사업을 5대 핵심 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과도 결부시키고 있다.

앰팩을 인수합병하면 SK(주)는 국내 공장과 지난해 인수한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합쳐 연간 100만 l 의 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후 증설 작업을 통해 2020년 이후

총 생산능력을 연간 160만 l 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CDMO 업계 1위인 스위스 지크프리트(연 155만 l)를 제치고 글로벌 1위 CDMO가 된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1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전략에 부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AP

I)을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위탁 개발·생산(CDMO)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종합제약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우수한 레퍼런스라고 보는데 SK(주)가 최근 결정된 인수합병 방향이 바로 cGMP 생산설비와 레퍼런스 확보를 단숨에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한다.

최태원 회장이 근본적 변화(딥 체인지)를 전사적으로 주문하는 가운데 장녀 윤정씨가 SK바이오팜에서 일을 배우고 이후 그룹 혁신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K(주)의 바이오·제약 사업부문은 1993년 SK에너지 대덕연구소에서 시작했다. 이후 생명과학 사업부를 거쳐 2011년 SK바이오팜이 설립됐으며 2016년 SK(주)가 손자회사였던 SK바이오텍 지분 100%를 사들여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인수합병에도 힘썼다. SK(주)가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에 출자한 금액은 이미 8000억원을 넘으며 이번 앰팩

인수와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바이오·제약 투자규모는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투자를 하면서 SK(주)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제약사업을 5년 이내 최고수준 업체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스로 설정한 2022년 바이오·제약부문 기업가치는 10조원에 달한다. SK(주)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기존 핵심 고객사의 미국 현지생산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 중인 신생 제약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시너지 극대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GC 북십자는 미국에서 프리미엄 백신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5월 워싱턴주에 백신 개발 법인인 큐레보를 설립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유한USA를 설립하고 하반기엔 보스턴에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다. 두 법인을 신약 개발·바이오 벤처 투자·현지 연구개발 인력 확보 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美서 더 현대 프로젝트 '3D: 더블 비전'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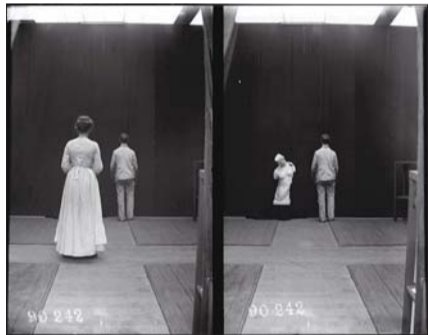
예술·기술 융합에 주목한 프로젝트  
3D가 미술사에서 구현된 계보 선배

현대자동차가 미국 LA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더 현대 프로젝트'의 신규 작품 '3D: 더블 비전' 전시를 시작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5년 현대차가 LACMA와 체결한 10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번이 4회째다. '더 현대 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아트+테크놀로지)에 주목한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젝트이다.

현대차는 '더 현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 전시를 후원해 현대미술계 발전을 지원과 기술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감동을 창출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방향성을 알려오고 있다.

'3D: 더블 비전'은 VR, 3D 프린팅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분야의 시초이자 영감이 된 3D가 지난 175년간 미술사에



'더 현대 프로젝트'의 신규 작품인 '3D: 더블 비전' 전시작, 미국 심리학자 조지프 제스트로의 시각 인지 실험 입체 사진(1905).

/현대자동차

서 구현된 계보를 선보인다.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의 본질, 착시의 아름다움 및 '기술-기구-인간'이 맺는 관계 등을 다루는 이번 전시는 일상적 사물과 함께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총 60여점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두 눈으로 하나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합성하는 '양안시'가 3D의 시각적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등 3D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獨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출시

범용성·확장성·시스템 사후관리 등  
태양광 발전 사용가구 100만 이상

LG전자가 독일에 차세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가정용 ESS 시장이다. 이번에 LG전자가 독일에서 출시한 차세대 가정용 ESS 신제품은 ▲여러 변환장치를 통합한 범용성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확장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등을 갖췄다.

5kW급 하이브리드 전력변환장치(PC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로 바꿔주는 태양광 인버터와 생산된 전력의 출력을 조절해 배터리에 저장하고 교류로 바꿔주는 배터리 인버터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LG전자가 독일에 차세대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제품을 출시했다.

/LG전자

기본 배터리는 6.4킬로와트시(kWh) 용량이지만 배터리팩 2개를 연결하면 12.8 kWh까지 용량을 늘릴 수 있다. 4인 가족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10~15kWh 정도이므로 배터리팩 2개만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전기를 충당할 수 있다.

LG전자는 독일 현지에서 가정용 ESS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부터 PCS, 배터리까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도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가정용 ESS 시장은 12만 대 규모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가정용 ESS 시장인 독일은 이중 3분의 1에 가까운 4만 대 가량을 차지한다. 독일은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가구가 100만 이상인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가정용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독일에 가정용 태양광 모듈을 공급했으며 제작년부터 가정용 ESS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성능과 확장성이 대폭 향상된 신제품을 앞세워 독일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유럽 주요 국가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 샤오미 '레드미노트5' 출시... 국내 도전장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자랑해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가진 중국의 샤오미가 스마트폰 '레드미노트5' (사진)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샤오미는 국내 유통사 지모비코리아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레드미노트5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레드미노트5는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카메라 기능을 갖췄다는 점이다. 후면카메라는 레드미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듀얼카메라를 탑재했으며 1200만·500만 화소를 자랑한다. 위, 아래 카메라에 모두 삼성 센서를 장착했다.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기능을 통해 100%의 픽셀을 사용하도록 해 빠



636 칩셋을 탑재했으며 램(RAM)은 4기가 바이트(GB) 저장공간은 64GB다.

레드미노트5는 CJ헬로비전, SK텔레콤, KT, 하이마트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식 판매한다. 출가는 29만9000원이며 색상은 골드와 블랙으로 출시된다. 아이나비 전국 AS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제주항공, 국적기 첫 '자동탑승수속' 서비스

제주항공은 국적항공사가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6월부터 항공권 예매시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모바일로 좌석 배정까지 이뤄진 탑승권을 자동 발급해주는 '자동탑승수속' (팝·사이판 노선 제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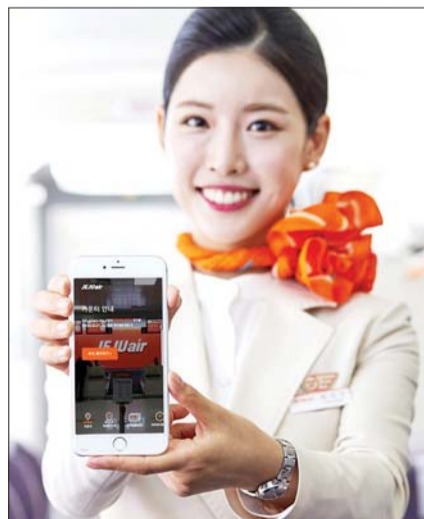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승객에게만 적용되며 좌석은 임의배정되지만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좌석으로 바꿀 수 있다. 부질 짐이 없다면 좌석배정까지 마친 모바일탑승권으로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보안수속을 받을 수 있어 공항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천공항의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탑승수속'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탑승수속 과정에 보안인터

뷰가 필요한 미국령 괌과 사이판을 제외한 제주항공의 29개 해외 취항도시를 이용할 때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국가 입국에 필요한 비자 소지 여부나 편도항공권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모바일을 이용한 '자동탑승수속'이나 키오스크를 통한 '무인탑승수속' 이후에 부질 짐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수하물을 맡기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 즉 '스마트백 트랩'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국제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과 삼성동의 도심공항터미널, KTX광명역에서 탑승수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주항공 모바일 앱 GPS.

/제주항공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서비스는 괌과 사이판을 포함해서 당일 출발하는 예약이 확정된 항공권을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정영우 기자 yw964@